



미쳐도 괜찮아 베를린

2014년 9월 24일 발행

ISBN 978-89-93928-75-4 03810

145 * 205mm | 256쪽 | 올컬러 | 13,500원

편집 박선주 031-955-1908

마케팅 정유선 031-955-2688

불편하겠지만 꼭 당신들의 소파에서 자고 싶다

일러스트레이터 아방의 카우치 서핑

[카우치 서핑] 호스트가 서퍼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소파나 매트리스를 빌려주거나 방을 내어주기도 하며 함께 생활하는 것

유쾌, 위트, 낭만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아방이 드로잉북을 들고, 낯선 남자들의 소파를 빌려 베를린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의 이야기와 그림을 책으로 펴냈다. 관광 명소나 거창한 예술을 찾는 누구나 하는 평범한 여행이 아니다. 인연이 되어준 몇몇의 서퍼들에게 짜릿한 일상과 미쳐도 괜찮을 수 있는 법을 배워왔다.

베를린의 소파를 빌리고, 그 주인들을 만나다

삶의 평탄함이 지겨워진 20대 후반의 여성. 그녀는 여행을 통해 자신을 박살내줄 무언가를 마주치고 싶어 안달이 났다. 부디 무사하고 싶지 않았다. 적당한 호텔의 침대를 빌릴 돈도 있었고 세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돈도 있었지만 그녀는 정말이지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 뻔뻔하지만, 불편하겠지만, 꼭 얻어 자고 싶었고 얻어먹고 싶었다. 그것도 꼭 낫선 이들의 소파에서, 당신이 만들어주는 요리로. 그래서 무작정 알지도 못하는 베를린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당신의 소파에서 재워달라는 메일을 썼고, 흔쾌히 소파를 빌려주겠다는 이들이 몇 있어 그녀는 베를린으로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베를린 남자들의 소파를 전전하며 무려 한 달간 베를린을 누볐다. 모두가 위험천만한 짓이라며 말렸지만 그녀는 이 여정을 더 미뤄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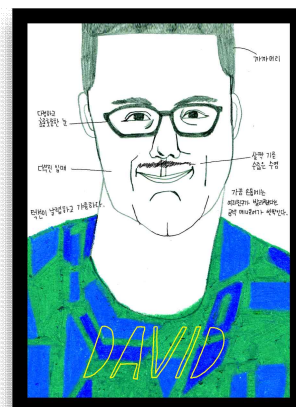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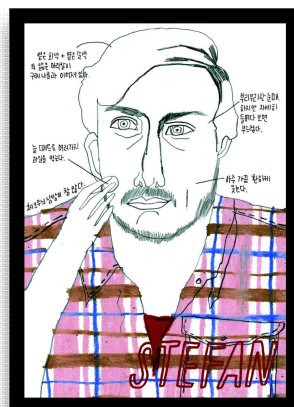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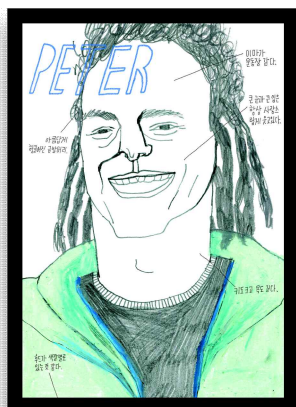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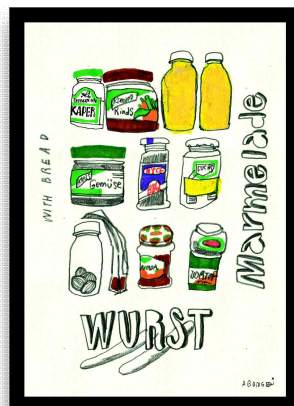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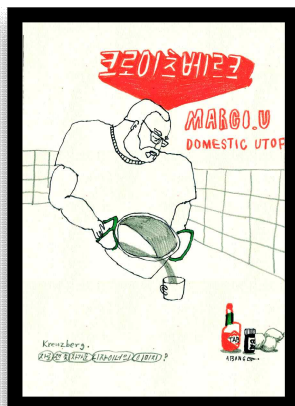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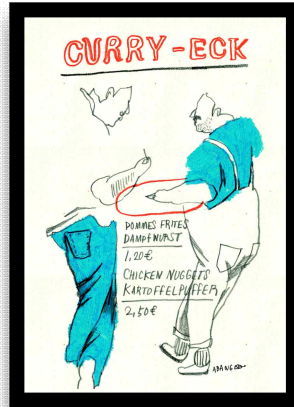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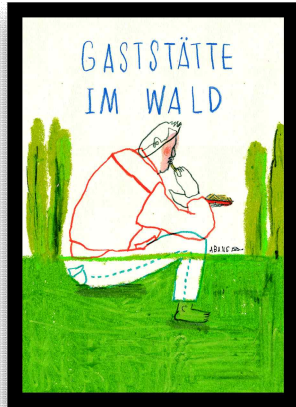
베를린의 그들이기에 잘 미쳐도 괜찮다

카우치 서핑을 하는 호스트와 서퍼가 ‘베를린’에서 만난다면 어떤 모습을 할까. 아방이 만난 친구들 민, 피터, 마르코, 조, 스테판, 다빗, 아드리안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베를린의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함께하자며 그녀에게 툭툭 던져주는 것들을 그녀는 즐거이 받아냈고 그것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오감을 건드렸다.

공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아티스트를 위한 작업실이 숨어 있는 옷 가게, 모두가 즐기는 전시장, 나이 든 사람들의 동네 페스티벌, 숲에서의 일렉트로닉, 유럽 최고의 클럽 등의 풍경을 마주하면서 그녀는 가지고 있던 시간과 공간과 생활에 대한 개념이 산산조각남을 경험한다. 그녀의 상식은 더이상 상식이 아니게 되었고, 매번 그때까지는 상식일 수 없었던 새로운 상식을 받아들여야 했다. 틀에 갇혀 있고 편견으로 가득했던 자신과 자주 마주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은 도시, 베를린이었다. 홍대보다 더 홍대 같고, 이상하고 또 이상해서, 결국 이상하지 않은 도시였다.

베를린의 호스트들은 역사를 공부하거나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기도 했고 동시에 클래식과 현대음악에 조예가 깊은 뮤지션이기도 했다. 주말엔 공연도 했다. 집에서 수준급으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였고, 공기의 흐름과 밤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자였다. 그들의 하루만 25시간일 리는 없는데 그들은 다재다능했고 자유분방했다. 베를린과 그들의 소파에서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더 좋은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고, 보다 더 잘 미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방이 던지는 낭만



이 책엔 아방의 작품이 총 50여 장 들어 있다. 그녀가 놓치지 않고 포착해 그려놓은 여행의 장면으로 우리는 그녀가 본 베를린을 상상함과 동시에 그녀의 모습까지 상상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7명의 카우치 주인들의 인상기도 그려넣어 그들의 얼굴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러프한 선과 거침없는 색감에 매혹되는 것일까. 아방의 그림에 머물고 싶음과 동시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여정을 이어나가듯 이 책을 읽어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작가의 매력이 페이지 사이사이에 서 통통 튀고 있다.


떠나고, 사람을 만나는 데에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아방의 그림이 한 편의 낭만과 위트와 용기를 선물해주지 않을까 싶다. 유쾌한 글과 재치 있고 낭만적인 그림은 무언가를 망설이는 모두에게 그래도 한번쯤은 좋아하는 것에 미쳐도 괜찮다고 말한다. 아방이 그랬던 것처럼 일탈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극제가 되어줄 거라 믿는다.

스페셜 페이지 : 소파를 넘어 베를린의 아지트로 걸어 들어가다


베를린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넘쳐났다. 그중 특별했던 22개의 공간을 스페셜 페이지에서 정리해두었다. 작가가 가보았던 수많은 장소 중 매력적인 소품 가게나 갤러리, 베를린의 흔적이 가득한 카페를 주로 소개하고 있다. 그곳에서의 겪은 간단한 에피소드를 고백하기도 하며 그곳엔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가면 좋을지, 간단한 팁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작가는 문을 여닫는 시간과 메뉴와 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가 가득한 여행 서적에 의지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발품을 팔아보기를 권유한다. 그 공간에 어떤 해가 내리쬘었고, 어떤 주인이 어떤 말과 표정으로 주문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늘어놓았으니, 어떤 독자는 마음에 얹혀버린 한 문장 때문에 이 책을 들고 베를린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당장 짐을 챙기기 시작할 것이다.


본문 중에서


 난 또 우물쭈물해야 했다. 이번엔 신발을 벗어야 할지 신고 있어야 할지 몰라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신발들은 현관에 쌓여 있었고 피터와 친구들은 맨발이었지만 바닥엔 낙엽과 모래, 먼지들이 엉켜 있어 도대체 여기가 바깥인지 집 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관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더니 피터가 더 활짝 웃었다. 나에게 앉으라고 권해준 의자만 빼놓고 식탁도, 복도도 지저분하긴 마찬가지였다. 어지러운 집 안 끝에 당황해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자 손동작이 크고 친절한 필립이 눈을 찡긐했다.

“더럽지? 하하하. 사실 이건 더러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야. 너에게 베를린의 여름을 보여줄게. 우리집 바닥엔 모래도 있고 벌레들도 있으니 아마 텐트 치고 캠핑하는 기분이 들 거야.” _본문 59쪽, [베를린의 여름을 보여줄게] 중에서

 피터의 머리카락은 갓 지은 새동지처럼 부스스했고 얼굴은 부어 있었다. 또 한번 내 상식이 빗나갔다. 처음 보는 손님이, 그것도 외국인이 오는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신나게 놀고 이렇게 더러운 집 안 끝과 산발이 된 머리를 보여주다니. 카우치 서피를 맞이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에 그리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필립이 수납장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더니 그중 하나를 골라 나에게 건넸다.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다. 나도 그들을 믿어 큰 걱정 없이 그곳까지 가긴 했지만 이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라곤 사이트에 올려놓은 소개와 사진, 내가 그린 그림 몇 장이 다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딱 그만큼 아는 나에게 스스럼없이 집 열쇠를 건네주고 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 집에 겁도 없이 자러 간 내가 만난 지 십 분 만에 그들에게 받은 것은 집 열쇠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_본문 61쪽, [베를린의 여름을 보여줄게] 중에서

 원피스와 등 쪽 단추를 모두 풀어헤치고 앉아 책을 읽는 처녀, 자두를 먹으며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 풀밭 한가운데 상반신을 드러내고 신선처럼 누워 있는 소년. 가만히 둘러보자니 어떤 노랫말도 감성도 다 정지된 듯, 소리는 멈추고 실바람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였다. 그리고 너그러운 6월의 햇살은 ‘이리와. 구석구석 골고루 축축했던 네 마음속까지 바싹 말려줄게’라고 속삭였다.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게 말을 줄인 채, 어둠이 오기 전까지의 공원을 즐길 모양이었다. _본문 108쪽, [누가 화장실 좀 찾아줘요] 중에서

 “있잖아, 스테판. 사과는 저녁보다 아침에 먹는 것이 건강에 좋대.” 스테판은 대답은 하지 않고 사과 한쪽을 더 내밀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였고 또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맛있다!”
스테판이 씩 웃었다.
“사과를 언제 먹어도 난 건강해. 그리고 사과를 언제 먹어도 맛있어.” _본문 160쪽, [어쩌다 보니 당연하게 웃고 있다] 중에서

 사람들은 나중에 기억을 꺼내보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그림은 그리기 위해 기억을 한다. 그래서 여행에서는 오히려 사진보다 그림을 그림으로써 기억하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한 컷재빨리 찍고 지나가는 사진보다 때로는 찬찬히, 꼼꼼히 눈으로 어루만져야 그려지는 그림이 더 선명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_본문 228쪽, [홈리스에게 집이 있다?] 중에서

차례

프롤로그

부디 무사하지 않기를 8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11
나는 '0'이 좋다 13
혼자 덩그러니 16
차갑고 볼 것 없는 도시 20

MIN / 방황하는 당신

진짜 베를린, 이제부터 시작이야! 28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34
다른 시간 안에서 40
이상하고 이상한 44

PETER / 여유를 즐기는 당신

베를린의 여름을 보여줄게 58
히피들의 텐트 62
숲에서 추는 춤 66
우린 뮤지션이 아니야 68
우리 수영하러 갈래? 74
완벽한 여행을 위한 헤어스타일 80
너흰 뮤지션이자 요리사구나 87

MARCO / 절대 특별하지 않은 당신

친절한 마르코 98
다락방이 있는 집 102
누가 화장실 좀 찾아줘요 104
보통 사람 109
친구가 필요해 114

JOE / 착하지만 불편한 당신

마법의 성 128
맞지 않는 옷 132
잠시 챗바퀴를 멈추고 135
베를린을 아름답게 하는 것 141
또하나의 여행 149

STEFAN / 심플하게 살고 싶은 당신

어쩌다보니 당연하게 웃고 있다 156
상관없어, 스테판은 알고 있으니까 160
별일 있는 보통날 164
비와 베를린, 날것의 베를린 167
못생긴 모과 하나 174
기대하고 기대하던 금요일 밤 178
예술학교 수업을 훔치다 183
너는 꽃 나는 나비 185
슈프레 강이 뭐라고 188
오늘 하루도 잘 썼습니다 190

DAVID / 열정이 넘치는 당신

예술 그 자체인 집 206
불꽃이 튀었던 순간을 놓치지 마 210
꽃향기 나는 밤 212

ADRIEN / 뭐든지 오케이인 당신

어느 별에서 왔니 218
불평은 그만, 잇츠 오케이! 223
홈리스에게 집이 있다? 226
사람의 밀도 229
소소한 차이, 사소한 발견 232
동네 페스티벌 236
우리는 밤늦도록 238
또 만나자는 인사 240

에필로그

인연들의 이름 250
상상은 언제고 현실이 된다 252

지은이 아방

유쾌, 위트, 낭만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씨네21>, <대학내일>, <타이포그래피 서울> 등 출판물에 연재를 하고 있으며 에세이 형식의 작은 그림책 『토마토브루스케타』를 출간했다. 삼원페이퍼갤러리, 갤러리아이엠 등에서 전시도 했다. 다양한 제품 콜라보레이션 활동과 밴드 '라 이슬라 보니따'의 앨범 아트워크를 했다. 드로잉 수업을 진행하며 그들과 드로잉커뮤니티 <아방이와 얼굴들>을 유지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www.abang0209.blog.me